

“IMF 때도 공적자금 안받아… 금고에 준비금 1.7조 ‘든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 2년 인터뷰**

중앙회 지원기능 강화… 책임경영
취임 후 자산, 당기순익 크게 성장
금고간 격차해소… 상생방안 마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위기를 극복했을 만큼 견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으니 새마을금고를 믿고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임기동안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2018년 3월 취임하면서 ‘금고가 먼저다’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새마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을금고가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기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새마을금고의 자율적 책임 경영이 바탕이 돼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기 시작부터 중앙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금고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각종 분담금을 경감했다. 또 금고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

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에 반영했다.

—취임 후 주요 성과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성장했다. 취임 전인 2017년 말 약 150조원이던 자산은 2019년 말 190조원으로 약 27% 성장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6조3000억원, 출자금은 7조9000억원으로 총 자산의 약 8%에 달하는 자

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반기 내에 자산 200조원을 달성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난해 1월 디지털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호금융권부 실논란이 있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수준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은 여러 경영지표로 봤을 때 상호금융기관 중 우수하다고 자신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적금의 74%는 대출채권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 중 부동산 등 담보대출이 96%에 달한다. 연체대출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85%로 다른

상호 금융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 하여신비율도 각각 2.21%, 2.4%로 상호금융기관 평균인 2.47%, 2.6%보다 약 0.2%포인트 낮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6조3000억원, 출자금은 7조9000억원으로 총 자산의 약 8%에 달하는 자

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안전하다고 보면 되나.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은행보다 먼저 예금자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예금자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을 지급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조성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은 1조 7220억원에 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거래해도 된다.”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운영 계획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금고와 영세금고 지원에 나서 금고간 격차를 해소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금융역량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확장해 회원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BL생명, 갱신 없이 3대 주요질환 보장

최대 5000만원 진단급여금 지급
진단 확정 후 2년마다 재진단비
초기, 중기 등 단계별 진단비 보장

보험료 갱신 없이 3대 주요 질환인 암, 뇌출혈·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ABL생명의 ‘더나은(무)ABL소중한건강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ABL생명에 따르면 1종 ‘3대질병보장형’은 암, 뇌출혈·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2종 ‘2대질병보장형’은 뇌출혈·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이들 주요질병의 재발 보장도 강화했다.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또는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에 가입하고 진단 확정 후 2년마다 재진단을 받으면 최대 2000만원까



/ABL생명

지 재진단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무)남성특정질환보장특약’과 ‘(무)여성특정질환보장특약’을 선택하면 남성은 남성의 특정만성질환인 위십이지장궤양, 간의 질환, 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등을, 여성은 부인과 특정질환인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양성신생물 등을 보장받는다.

‘(무)초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무)중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무)말기간·폐·신장질환

진단특약’에 가입하면 간, 폐, 신장질환의 초기, 중기, 말기 등 단계별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30세 남성과 여성이 주계약 가입금 액 1000만원, 80세 만기, 20년납으로 이 상품의 1종 3대질병보장형에 가입하면 주계약 월납보험료는 각각 1만 9700원, 1만3800원이다. 2종은 각각 1만2200원, 8800원이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0세 까지다. 가입한도는 30세 미만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30세 이상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2018년 기준 230여만명의 사람들이 3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험료 변동 없이 주요 질병만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장수시대 고객들이 든든한 질병 보장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누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s90@

신한銀, 코로나 극복 ‘보릿고개 지원대출’

신규 후 6개월간 이자 납부 유예
고객별 최대 연 2%까지 우대금리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한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후 6개월 간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대출 신상품을 4월 초 출시할 예정이며, 해당 상품명을 ‘신한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로 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이 자금 조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대출 신상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후 6개월간 납부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대출 만기는 2년까지며, 고객별로 최대 연 2%까지 우대금리를 적

용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보증기관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 방안 발표 이후 자영업자 고객들의 대출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많은 고객들이 대출 신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객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우리銀 고객이 직접 대출까지 ‘디지털금융점포’

디지털존, 상담존 두가지로 구성
디지털체험 스크린 비치 사전체험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역에 디지털금융점포를 개점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점포는 우리은행이 도입한 특화영업점으로 기존 강남역지점을 리뉴얼 했다.

디지털금융점포는 디지털존(Zone)과 상담존으로 두가지로 구성된다.

디지털존에서는 ‘스마트키오스크’를 활용해 예금, 외환, 전자금융, 카드 등의 신규 업무와 각종 변경 신청 등을 고객 스스로 할 수 있다. 예금자보대출 신규 및 연장 등 일부 대출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디지털체험 스크린을 비치해 고객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사전 체험할 수 있고, 사용법 안내 전담직원을 별도 배치해 디지털금융점포에 처음 방문하는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존에서는 단순업무를 처리할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역에 디지털금융점포를 개점했다. /우리은행

수 있는 디지털존과는 달리 심화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대기 공간이 분리된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객장에서 자산관리상품, 기업금융, 개인여신 등 업무별 전담직원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나유리 기자

KB국민銀 보이스피싱 징후 탐지 시스템 오픈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한 ‘신(新)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자금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징후를 탐지하는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년 간 금융사기 거래 분석 요건을 복합 모형화하는 등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념해왔다. 실제 최근 2개월 간 ‘신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약 640여건, 총 55억원 이상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방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와 IT기술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사기거래에 대한 탐지율을 향상 시키는 등 보이스피싱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변하면서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IT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금융권 전체를 선도하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